

현대불교 출가자 도제교육의 과제

장 익

위덕대학교

〈요 약〉

본 논고의 목적은 불교승가의 일원을 육성하는 교육인 출가자 도제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사회의 출가자 도제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불교전통에 있어서의 도제교육의 의미와 교육체계 등과 시대별로 그 사회를 반영하는 교육제도가 도제교육 속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인 불교전통 속에서 출가자 도제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삼국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전통적인 교육이 중시되면서 시대적인 승단의 향방과 사회적인 변동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온 과정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근대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도제교육 체계가 제시되었지만 역사적인 혼돈 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었다. 그리고 현대적인 교육제도가 한국사회에 정착되면서 출가자 도제교육에서도 이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전통교육과 현대적인 교육 사이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게 되었다. 첫째, 정규적인 대학과정에서부터 도제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전문적인 현대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불교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공동생활 속에서 수행과 습의 등의 전통적인 교육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하여 현재 기본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승가대학, 기본선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등에 대하여 통합적인 단계별 교육과 전문적 교육과정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불교교육, 출가자 도제교육, 기본교육, 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교.

I. 머리말

모든 종교의 역사는 창시자에 의한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그 제자들에 의하여 전승되었으며, 이러한 전승은 도제교육이라는 새로운 종교 지도자를 육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능하였다. 특히 지도자가 중시되는 종교의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조직보다도 엄격한 제도와 교육체계 속에서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특히 불교의 역사는 승가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출가자들의 집단인 승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도제교육의 전승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세계 각지에 유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승가의 역사는 석존의 생존 당시로 소급되며, 석존의 교화에 의하여 각성된 제자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승가의 규율이나 제도는 대부분 석존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석존은 최초의 불교도제를 양성한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승가로 변형하면서 각기 다른 전통을 지니기도 하였으며, 부파불교 시대에는 각 부파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새로운 승가의 교육목표가 설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대승불교의 성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과는 이질적인 새로운 보살승가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그 추구하는 바가 석존의 교설과 다르지 않다는 확신에 찬 대승인들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과감하게 승가의 제도와 수행을 혁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대승의 이념으로 도제를 육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시대상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허락되었으며, 보편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의 시대적인 변천의 근원에는 승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도제를 양성하는 교육에 의하여 그 전승이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현대 한국불교의 중심에 위치하는 승가의 출가자들을 위한 도제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삼국의 불교 수용이후 한국불교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대승불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시대적인 변천과 함께 승가 공동체의 교육목표를 설정하면서 시대별로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도제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존의 사회변동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모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현대적인 교육제도는 새로운 교육방안으로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통교육을 중시하는 종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점에서 현대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교 도제교육의 근원적인 의미와 한국불교의 전승과정을 통하여 전개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라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조계종)의 도제양성 교육의 체계와 타종교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오늘날의 시대에 적합한 도제교육에 관한 제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불교 출가자 도제교육의 의미와 한국적 전개

1. 불교 출가자 도제교육의 의미

도제교육이란 도제를 위한 교육이며, 도제(徒弟)란 제자나 문인을 뜻하는 말이며, 스승에게서 학술이나 기예 등을 배우는 제자라는 의미인 문도제자(門徒弟子)의 준말이다.¹⁾ 문도제자에는 일문(門)이라는 동일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결속적인 집단의 의미와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徒)이라는 대상의 뜻과 학습하는 배우는 자(弟子)라는 활동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도제라는 말속에는 이미 일정한 결속력을 지닌 집단 속에서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연의 의미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넓은 범위에서는 동일한 교육목적을 지닌 자들이 동참하여 일정한 교육집단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집단은 구성원들의 욕구에 의하여 일시적인 형태를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집단의 존속을 도모하면서 일정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사회 속에서 일정한 규모의 집단을 형성한 경우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성원을 얻기 위한 교육 또는 구성원의 재교육을 포함한 집단의 공적인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을 교육하는 국민교육과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위한 사회교육과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을 교육하는 가정교육 등도 넓은 범위에서는 도제교육 속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제교육이라는 의미는 뚜렷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특정한 이념이나 신념과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한 종교적인 신앙심과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모인 종교집단은 어떤 국가나 사회집단보다도 강력한 도제교육을 필요로 한다.

불교의 도제교육은 석존(釋尊)의 성도 후 Bārāṇasi Isipatana-migadāya에서 오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한 초전법륜에서 시작된다. 그 내용은 중도·사성제·팔정도 등이며, 설법을 들은 이들은 모두 아라한을 얻고 석존을 포함한 6인의 Saṃgha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승단의 시작이며, 이후 4인의 출가자를 비롯한 Yasa와 친구 50인의 출가로 인하여 61인의 출가자가 생긴다. 그리고 Yasa의 부친은 세존과 법과 승가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제창하고 우바새 신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석존의 전법선언에 의한 불교교화가 시작되며, 출가·유행·결식하는 초기의 승가가 성립된다. 초기에는 일정한 주처(住處)집단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승가는 불(佛)에 대한 귀의와 법(法)에 대한 귀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적 현전승가(現前僧伽)의 형태를

1) 『百喻經』 권 제3에는 “師徒弟子”(大正藏4, p.551上); 『出曜經』 권 제16에는 “門徒弟子”(大正藏4, p.696上)라는 표현이 있으며, 史傳部에는 “徒弟僧”과 “徒弟子”라는 표현도 보인다.

지닌다. 그러나 점차 불교의 지역적인 확대에 의하여 현전승가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편화한 사방승가(四方僧伽)가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또한 당시 인도 수행자 공동체의 일반적인 관습과 풍토적인 영향으로 인한 우기(雨期)에 해당하는 기간의 유행에 대한 제한으로 불교승가에도 주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입우안거(入雨安居)하는 삼 개월 동안 포살(布薩, uposatha)과 자자(自恣, pavāraṇa) 등의 집단 의식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일시적인 정주처인 āvāsa(住處) · ārāma(園) 등이 성립되었고, 점차 영구적인 정주지의 성격으로 변해 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교승단은 유행하는 집단이 아닌 정주된 수도승의 사회로 변모하면서 이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집단의 계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veluvanārāma(竹林園), jetavanārāma(祇園), kukkuṭāāma(鷄園) 등의 주처가 생기고 이러한 장소는 비구들의 포살과 자자를 비롯한 의식을 집전하고 수도승의 훈련과 법에 관한 토론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점차 대형화되고 승가를 위한 모든 시설을 구비한 승원(lena, 또는 僧院)이 되면서 정주화(定住化)된 수도승의 단체 생활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석존의 입멸로 인한 교단권위의 상실과 불교교화의 지역과 대상이 넓어지고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승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승가를 통칭할 수 있는 교단은 법과 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통제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이러한 교단에 참가하게 되는 출가자들을 위한 특정한 지도가 요청되면서 전문적인 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석존 재세 시부터 제자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인정되었던 전통에 의하여, 석존사후에는 석존의 역할이 유능한 제자들에게 위임되었다.

이러한 전문적인 제자들도 초기에는 법을 전지(傳持)하는 자(dharma-dhana) 또는 율을 전지하는 자(vinaya-dhana)라고 불렸지만 점차 법을 설하는 자(dharma-vādin), 율을 설하는 자(vinaya-vādin) 등으로 말해지면서 설법자나 해설자(dharma-kathika)가 등장하게 되었다.²⁾ 이것은 불교교단의 확대와 승가의 정주화가 이루어진 승원불교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불교교단의 도제교육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불교 도제교육은 유행(遊行)을 위주로 하는 수행중심의 초기승가가 정주하기 시작하는 승원(僧院)불교로 성립되면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부파의 분열과 대승불교의 흥기와 전개 등에 의하여 각기 다른 계율과 가르침을 따르는 특성적인 교법집단이 형성되면서 그 집단에 필요한 도제교육이 다양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도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정통과 이단이라는 분파적인 교단의 형태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원교육은 보편화되었고, 특정집단이 선호하는 경론과 율을 강습하는 학문중심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2) 早島鏡正, 『初期佛教の社會生活』(岩波書店, 1964), p.394.

이러한 인도불교의 도제교육은 승가의 원칙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변동성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불교의 유연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종교도 문화현상의 하나로서 사회적인 장에서 배워서 익혀지고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³⁾

인도와는 다른 전통을 지닌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학과중심의 불교는 점차 종파적인 색채를 갖게 되고 수당대가 되면 천태종과 화엄종을 비롯한 선종 등의 다양한 종파불교가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각 종파의 특성적인 도제교육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불교교단은 전통적으로 출가자 위주의 승원이 중심이 된 수행 도제교육과 특정한 교학과 수행체계를 신봉하는 학과 혹은 종단의 집단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종단 도제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승원 또는 종단의 도제교육이 중시된 것과는 달리 타종교에 비하여 승단 또는 종단의 참여 빈도가 낮은 재가신도들에 대한 제도화된 정규적인 도제교육은 소홀한 면이 많았다.

2. 한국불교 출가자 도제교육의 형성과 전개

삼국시대 이후 불교가 이 땅에 수용되면서 수많은 도량이 건립되어 수행과 포교를 통하여 차원 높은 한 민족의 정신적 문화를 형성함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행과 포교의 중심이 되는 유능한 인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강원(講院, 講堂)이나 선원(禪院, 禪堂, 禪房) 등의 불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승단을 유지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 왔다. 이러한 불교 교육제도의 시대적인 변천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설명하기도 한다.⁴⁾

- ① 교학시대(불교전래에서 선의 전래까지) : 자장(포살, 합동고사), 원광(백고좌회, 세속오계), 원효(화엄사 해회당, 대중교화) 등의 경론을 중심으로 한 승가교육.
- ② 교선병립시대(신라 말에서 고려 문종까지) : 균여(귀법사의 중강 전업-중강제도의 시초), 정종(불명경보와 광학보-불교장학재단), 광종(승과실시와 선교종 법계의 분리) 등 선교의 독자적인 교육.
- ③ 선교융섭시대(천태종과 조계종의 개종 후 고려 말까지): 의천(천태종 교관쌍수의 선교합일), 지눌(조계종 정혜쌍수의 선교융섭), 보우(조계종 선교겸수, 원융부 제도, 청규와 치문) 등 교나 선의 입장에서 선교를 회통하려는 교육.
- ④ 선교양종시대(조선 태조에서 선조까지): 태종6년(11종 241사), 태종7년(7종 88사), 세종6년(선교양종, 선교종별 승계와 승과), 중종2년(승과 폐지), 명종6년(선교양종제 부활 도승법과 승과제 실시), 명종21년(양종승과 폐지) 등 선교의 분별에 의한 독자

3) 기시모토 히데오 저, 박인재 역, 『종교학』(김영사, 1983), p.136.

4) 남도영, 『한국 사원교육제도』, 『역사교육』 제27-28(역사교육학회, 1980), pp.45-83 참조.

적인 교육을 실시한 시기를 말한다.

- ⑤ 선교겸학시대(휴정과 부휴이후): 휴정(선위본의 선교회통사상, 선교염불과 유불도 삼교회통), 백암성충(栢庵性聰: 1631-1700, 1695년 치문(縑門)과 경훈의 주석) 등의 교를 예비문으로 선을 최종문으로 하는 겸학교육을 실시한 시기를 말한다.

이렇게 시기별로 다양하게 불교가 처한 그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교와 선 또는 종단의 통폐합과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도제를 양성함에 있어서도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나타난 사례였다.

17세기 이후 선교겸학의 전통에 따라 삼학을 교육목표로 한 교과과정이 정리되고 사찰의 강원교육을 기초교육으로 하며 이를 이수한 자가 선원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는 근대적인 불교교육인 강원제가 정착하게 된다. 특히 대가람에는 강원·선원·율원·염불당 등의 교육기관을 모두 갖춘 총림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도제양성기관으로의 역할은 주로 강원과 선원이 맡았고, 각 단위 사찰에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강원제의 본격적인 학제의 시작은 벽송지엄(碧松至嚴: 1464-1534)에 의한 사집과의 시작과 부용영관(芙蓉靈觀: 1485-1571)의 사교과와 대교과의 조직이며, 백암성충(栢庵性聰: 1631-1700)의 노력에 의하여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의 사단계가 완비되고 수의과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조 때에 청허와 부휴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인조-숙종대에 백암성충이 강경(講經)에 전업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강원제도가 정착되었다.⁵⁾

강원의 조직은 학사일체를 총괄하는 강원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강주(법주, 강사)와 강사(승과합격한 대신이상의 법계)가 강경을 맡았고, 중강은 강경내용을 복강하고, 논강이 강사를 보조하였다. 교육받는 학생을 도제승 또는 사미라 불렀으며, 계율과 사원의 철저한 규칙 속에서 생활하고 공동체의 합숙생활로 조석예불, 간경, 좌선 등의 신앙적인 습의와 수행을 비롯하여 식사, 청소, 운력 등 청규에 의한 일상생활을 통하여 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행자로서의 면모와 포교자의 자질을 갖추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1일 수면시간 6시간과 8시간 이상의 학과 공부를 제외한 모든 시간은 개인의 학습과 공동체 생활이 공존하는 수행적 학습에 전력하였다.

또한 강원에 입학하는 자격을 출가생활 3년 이상인 사미계를 받은 1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종교인 전문인재 육성이라는 점에서 조기교육이 중시되어 7세 정도에 입산하여 2-3년의 행자기간을 지난 9-10세 이상에게 사미계를 주었고, 10년 혹은 11년의 본격적인 불교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비구계인 구족계를 수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강원을 졸업 후 수의과에 입학하여 4년 이상 수학한 이후 승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

5) 남도영, 위의 글, p.29.

어지는 등의 교육과정과 성직자의 자격인정을 병행하는 교육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전문적인 강원의 도제교육은 출가이후 발심한 사미를 대상으로 하여 정규의 성직자인 구족계를 받는 비구가 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단계와 승려법계가 일치하였던 특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강원교육은 당시의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유교교육의 교육기간(13년-15년)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자력적이고 인격적인 방법과 자율적인 학습방법을 중시하였으며, 체계적인 교과과정 편성과 계율을 위시한 지행합일의 전인격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였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선강·복강 등의 반복적인 방법을 활용하였고, 교육차제를 두어 단계별로 학습하게 하였다. 또한 스승에 해당하는 강사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대교과와 수의과를 마치고 승과를 합격하여 대선 이상의 법계를 얻고 법납이 안거 5하를 성만한 자로 하였다.

그러나 교과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사교과 이상에는 논강을 도입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였지만) 신앙적인 교훈과 전통적인 규범만을 중시하는 연역적인 교육경향이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이나 선진지식을 수용하는 귀납적인 연구 풍토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강원의 교과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 p.1149의 내용을 정리한 남도영, 「승가교육의 역사적 고찰」, 『승가』 1, 1984, p.17을 참조로 하여 오늘날의 학제와 비교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근대 불교교육학제

	과정	년한	이수과목	비교수준	내용
1	사미과 (沙彌科) (6-9과목)	1년(3년)	수십계(受十戒), 조석송주(朝夕誦呪), 반야심경, 초심문, 발심문, 자경문 (사미율의, 치문경훈, 선림보훈)	초등	계율, 습의 〈사미계 (沙彌戒)〉
2	사집과 (四集科) 4과목	2년(2년)	선원제전집도서, 대혜서장, 별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고봉선요	중등	간경준비
3	사교과 (四教科) 4과목	4년(2년6개월)	수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반야경, 원각경	고등	간경연구
4	대교과 (大教科)) (3-6과목)	3년(3년6개월)	화엄경, 선문점송, 경덕전등록, (십지론, 선가귀감, 법화경) 총17과목 (23과목)	대학	간경연구 〈구족계 (具足戒)〉
5	수의과 (隨意科)	4년 이상 14년(15년)	전공과목	대학원	전문연구

Ⅲ. 현대불교 출가자 도제교육의 체계와 문제

1. 현대불교 출가자 도제교육의 형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하여 1902년 4월 11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찰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흥사(元興寺)에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오랜 배불책에 대한 불교중흥의 노력과 함께 일본 불교의 유입으로 인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무기력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1904년 1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⁶⁾ 이후 1906년 홍월초(洪月初)와 이보담(李寶潭)에 의하여 원흥사에 불교연구회가 창립되었으나 일본 정토종의 지원으로 활동하는 한계를 갖게 되었지만 근대적인 불교교육제도의 효시라는 점과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설립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명진학교는 1906년 5월 8일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구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신교육을 위한 불교 중앙교육기관으로서 당시의 원흥사에 전문학교 정도로 설립 개교하였다.⁷⁾

명진학교는 각 사찰에서 대교과를 수료한 30-40대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수업연한은 2년의 정규과와 단기과정의 보조과를 두고 각기 35명이 정원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표 2〉 명진학교 교과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목	법계관문	천태사교의	화엄경	화엄경
	삼부경	능가경	염송설화	전등록
	범망경	사분율	열반경	종경록
	종교학·종교사	포교법	법제대요	법제대요
	산술(算術)	산술	철학·철학사	철학·철학사
	역사지리	역사지리	산술	산술
	(본국역사지리)	(본국역사지리)	역사지리	역사지리
	이과(理科)	이과	(외방역사지리)	(외방역사지리)
	(박물·생물대요)	(박물·생물대요)	이과	이과
	주산(珠算)	측량	(물리화학대요)	(물리화학대요)
	농업초보	도화수공(圖畫手工)	측량	경제대요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체조	체조	체조	체조

6) 1910년 이후 전국사찰이 조선총독부의 관리 하에 있게 됨.

7) 김정집, 『한국근대불교사』(경서원, 2000), pp.226-230 참조.

참선	참선근행 (시간외)	참선근행 (시간외)	참선근행 (시간외)	참선근행 (시간외)
과목수	11과목	11과목	11과목	11과목

교과목은 주로 신학문을 통한 포교인재 육성을 위하여 불교과목에 비하여 일반 교과목의 비중이 많았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선각자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교과목은 외국어·외국역사·측량학·농업초보·산술·이과·도화수공·체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의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⁸⁾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교육을 위하여 교과목 이외에 1일 2시간씩 참선근행을 수행하는 시간을 두었고, 수업시간은 체조와 실습을 제외하고 1일 5시간으로 정하고 전통 강원방식에 따라 전원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였으며, 1일 취침 7시간과 수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자업자습 하도록 하였다.

성적평가는 월종시험·학년시험·학기시험·졸업시험의 4종이 있었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우등, 60점 이하는 낙제로 하였다. 그리고 졸업증서를 받은 학생은 6개월간 지정된 학교 또는 강원에서 교무에 종사할 의무가 주어졌다.

그리고 1910년 4월 불교사범학교, 1914년 7월 불교고등강숙, 1915년 11월 중앙학림, 1928년 3월 불교전수학교, 1930년 4월 중앙불교전문학교, 1940년 6월 해화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 이후 해방과 함께 1946년 9월 동국대학으로, 1953년 2월 종합대학교 동국대학교로 승격 개편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교과과정은 점차 3년 과정에서 예과 1년, 본과 3년의 4년 과정으로 변화되었고, 교과목 중 외전은 철학·논리학·교육학·윤리학·사회학·문학·한문·작문·영어·회화·창가 등, 내전은 불교개론·구사학·유식학·인명학·금강경·기신론을 비롯한 불교사·불교미술 등이 첨가되었다. 시대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외전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전통적인 공동생활과 참선과 근행 등을 시간외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방식도 현대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선각자들의 노력이 보인다.

이러한 교과목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과목으로 보완되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으로 계승되었으며, 정규대학 교육의 일환으로 불교학을 연구·전수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불교학의 진흥을 위한 학자육성과 불교 전문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교육기관이기에 전통적인 도제의 종교교육을 병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도제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8) 이 당시에는 불교 교과목과 함께 일반교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최관수, 『교육에 취(就)하야』, 『조선불교총보』 제14호(삼십본산연합사무소, 1919), pp.23-24에서는 불교인도 일반 교과목인 자연교육을 이수해야 함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2. 현대 한국불교 출가자 도제교육의 체계

현대 한국불교의 중심에는 승가가 있으며, 승가는 교육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승가의 구성원을 육성하는 도제교육에 해당하는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계종의 교육체계는 기초교육·기본교육·일반교육(전문 및 특수)·재교육 과정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기초교육은 행자생활 6개월간을 말한다. 기본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은 승가대학(강원)을 비롯한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중앙승가대학교·기본(초)선원을 말하며, 총 수학 기간은 4년이다.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은 의무교육으로써 모든 승려는 반드시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을 이수한 스님은 구족계를 수지함으로써 종단의 정식 승려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이후 일반교육으로는 전문 및 특수 교육이 있으며, 재교육 과정으로는 5년차 및 10년차·20년차·25년차 교육 등이 있다. 이는 모든 승려에게 해당되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승려의 법계 품수 여부에 따라 도제양성의 자격부여와 사찰의 주지 및 각종 종무직 취임 등의 다양한 권리를 지니며, 이를 위해 각급 법계품수를 위해 필요한 수행 및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중헌 중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정별 교육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기초교육은 예불·운력·교육·학습·좌선 등으로 구성되며, 이 기간에 승랍 10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하고 4급 법계품수를 받은 자 중에서 은사를 정한다.

기본교육은 기초교육 과정인 행자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사미 사미니계를 받은 자에 대해 비구와 비구니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기간이며, 출가자들이 승려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 및 위의, 그리고 경전을 수학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이다. 주요내용은 예불·간경·소임·대인관계·참선을 통하여 출가사문의 생활을 익히는 실천수행기관이다.

기본(초)선원 참선 수행자로의 길로 들어선 사미와 사미니, 비구와 비구니들이 화두 참선에 들어 수행 정진하는 기관으로 총 90여개 선원이 있다.

전문 교육기관은 기본 의무교육 과정을 수료한 비구·비구니에 대해 구족계를 수지한 자가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수료 후에는 교수 아사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기본교육기관과는 달리 의무교육이 아니다. 종류로는 승가대학원·학림·율원 등 11곳을 지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이란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현대음악, 범패), 불교건축 등의 예술분야와 전법인력 양성 및 포교에 필요한 신문·방송·영상 등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이외에 직무연수와 직능연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직접적인 도제교육에 해당하는 구족계를 수지하게 되는 기본의무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기초교육과 기본교육 속에는 전통적인 사원교육과 현대적인 대학교육이 함께

병행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1) 승가대학의 교육은 전통강원이 유지하였던 사미과에서 대교과까지의 모두 11년의 의무 교육과정을 4년 과정으로 축소,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기본(초)선원(4년)을 기본교육 과정으로 두고 있는 점이 선종으로서의 조계종의 종풍을 보여주고 있다.
- 3) 대학교육은 중앙 승가대학교(4년)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4년)이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기본교육 속에는 전통사원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전통강원의 축소 형태인 승가대학과 선원교육에 해당하는 기본선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교육제도에 의한 대학설립인가를 득한 학위과정으로 중앙 승가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정서적 일체감이 중시되는 승가 공동체 속에서 단일 교육체계를 통한 종교 지도자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전통교육과 선원교육, 대학교육이라는 혼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서양종교에 해당하는 기독교의 경우, 대표적으로 장로회 신학대학의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 1) 기본교육: 신학대학 신학과(4년)-어학과 신학기초-신학사 수여
- 2) 전문교육: 신학대학원(3년)-신학연구와 실천훈련-신학석사 수여

이를 이수한 자들에게 목사고시를 실시하며, 대학 4년 대학원 3년의 7년 의무교육을 부가하고 있으며, 대학교육 내에서 종교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는

1) 대학

- ① 1학년: 별도의 기숙사에서 적응훈련
- ② 2-4학년: 철학과 신학 주요과목

2) 대학원

- ① 5학년: 교리와 신학지식 연구 (독서직 서품)
- ② 6학년: 신학토론과 종합 (시종직 서품)
- ③ 6학년 수료: 부제 서품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함)
- ④ 7학년 수료: 사제 서품 (사목자의 기본자질)

* 대학 4년, 대학원 3년 (교육 2년, 기본자질 1년)의 7년 의무교육

* 7년 과정이 모두 대학교육과 종교교육이 병행됨

*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과 훈련과정을 응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불교의 경우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모두 교도라 하며, 그중에서 전문적으로 교화에 임하는 성직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성직자의 분류

- ① 개념: 성직자, 교역자, 출가교도, 전무출신(專務出身)
- ② 교무(敎務): 교리강설, 법요의식 진행, 교화업무
- ③ 도무(道務): 교육, 행정, 자선, 연구, 의료 등의 전문분야 봉사
- ④ 덕무(德務): 근로와 기능분야에 봉공

2) 현행교육

- ① 전무출신 심사
- ② 기본교육(예비 교무과정): 원광대 원불교학과, 영산원 불교대학(4년)
- ③ 교무자격 1차 검정고시
- ④ 전문교육(교화실무와 전문연구):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2년)
- ⑤ 교무자격 2차 검정고시
- ⑥ 출가식(교무)

* 대학 4년 대학원 2년의 6년 의무교육.

* 대학교육과 전통교육의 이원적인 단일 체계화를 구축하고 있다.

3. 현대불교 출가자 도제교육의 문제

현대사회는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이며, 종교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겸하게 되므로 반드시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참다운 구도자, 일반교육을 기초로 한 불교교육, 지속적인 학습의 가능성을 위한 어학의 학습, 포교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 지도자로서의 격조 높은 교양과 취미 등으로 표현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방을 제시하였다.⁹⁾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육에만 국한될 수는 없다. 전통적인 승가의 기본은 강원이며, 선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강원과 선원과 대학이 어우러지는 장을 도제교육의 장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¹⁰⁾

또한 기본교육의 체계에 있어서 기존의 승가대학의 위상을 높여 불교학의 고급과정이 되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대학원으로의 개편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¹¹⁾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각 기관 간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각각의 기본교육 기관에 대한 보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외나하면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모두가 소중한 종단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기관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9) 박선영, 『출가위승과 교육의 제문제』, 『석림』 15(동국대 석림회, 1981), p.938.

10) 이기영, 『승가교육의 제문제』, 『석림』 9(동국대 석림회, 1975), pp.328-333.

11) 박선영,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 『종교교육학연구』 제8집(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pp.51-78. ; 박선영, 『승가교육의 제도개선 방향』, 『승가』 7(중앙승가대학교, 1990), pp.62-71.

장단점을 보완하여 유기적인 관계정립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축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불교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적인 도제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교육이며, 이에 관한 교육체계를 타종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

- 1) 불교의 경우 대학교육은 현대적인 학술활동이 중심이 되고, 전통교육은 습의와 경전 강독이 위주가 되는 등의 혼선이 있는 반면 서양종교는 대학교육과 병행하여 종교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고 교육과정에서도 현대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서양종교의 경우는 대학과 대학원을 기본교육과정으로 하며, 단계별로 적합한 종교교육과 실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의 경우는 대학 4년 이후 다양한 서품을 주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직위에 적합한 종교활동을 하게 하여 종교인으로서의 실무경험을 얻게 한다.(현장, 생활교육이 위주가 됨). 그리고 대학교 교육과 기숙사의 종교교육 등에 관한 성직자 교육에 대한 시설과 열의가 많은 편이다.
- 3) 원불교의 경우는 대학교육(원광대학교)과 종교교육(영산원 불교대학)의 이원화를 제도화하면서 대학원 대학에서 통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경우 과거에는 출가자의 교육정도가 다양하였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고졸이상의 학력이 유지되므로 통합적인 교육체계가 필요하고, 연령이 대체적으로 높아져(2008년 예비승의 통계인 경우 30세 이상이 2710명으로 전체 3116명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을 지속하기가 힘들며, 현대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¹²⁾

현재 조계종의 도제양성 교육기관으로는 전통 강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 승가대학¹³⁾과 현대적인 승가교육을 목표로 하는 중앙 승가대학교¹⁴⁾와 종합대학교의 교육 일한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기본선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2008년 승려기본교육에 입교한 입학생을 대비해 보면 전체 349명 중에서 승가대학 19개 208명(60%)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학이 116명(33%), 기본선원이 25명(7%)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의 교육여건과 문제를 정리해본다.

1) 승가대학

조계종의 도제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며, 많은 수의 승려를 교육하고 있는 지방 승가대학은 2008년 현재 19개 학교(비구 13개, 비구니 6개)이며, 운영과 교과과정은 사미·사집·사교·대교과 등으로 거의 근대 강원교육을 답습하고 있으며, 일부 승가대학

12) 현대적인 불교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한편으로는 불교 세속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원의범, 『승가교육의 역사적 전개』, 『석림』 9(동국대학교 석림회, 1975), pp.334-338). 전통교육과 현대교육의 보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3) 1987년 조계종 종법개정에 의하여 전통강원을 승가대학으로 개칭함. 학인의 60%정도가 소속되어 있다.

14) 1990년 4년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인가, 1996년 정규대학 개편승인, 2002년 대학원설립인가.

에서 외국어와 전산·꽃꽂이·서예 등이 추가되어 있다.¹⁵⁾

1994년 종단개혁이후 승가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승가교육 개혁에 관한 논쟁이 일게 되었다. 주된 논점은 ‘강원은 수행도량이며 학인은 수행자’¹⁶⁾라는 ‘대학교육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입장과 ‘승가교육은 퇴보했다’¹⁷⁾는 ‘현대적인 불교교육의 수용’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입장의 차이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승가대학의 교육자체가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요청되었고, 종단과 학자들의 승가대학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왕성해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요약해 보면,

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② 교육행정의 미비 ③ 교육방법의 낙후성 ④ 교육시간의 부족 ⑤ 교육제정의 빈곤 ⑥ 교과과정의 전근대성 및 일관성의 부족 ⑦ 교육환경의 미비 ⑧ 교육체계의 문제성 ⑨ 학적관리 문제 등과 같다. 이것을 분석하면 지방 승가대학의 경우는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으로는 종단의 도제양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①⑤⑦)과 현대적인 교육제도의 미숙(②③④⑥⑧⑨)으로 집약된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종단의 승가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자각과 강원교육의 전통성 유지와 현대적인 교육방법을 이용하는 승가교육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강원의 승가교육이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승가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책임자들의 의식전환과 교육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수용하는 과감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¹⁸⁾

특히 현재 승가대학 학인의 학력이 남자 93%, 여자 95%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들로 고학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나이에서도 1960년대에는 20세 이하가 50% 정도였지만, 2000년에는 평균 35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승가대학 입학률에서도 1990년에는 비구 42% 비구니 80%, 2008년에는 전체 기본교육자 중에서 60%가 승가대학을 입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불교 인재의 양성으로 새로운 현대문명을 창조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승려의 사회적인 전문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 가고 있다.

15) 전근대적인 교과목으로 종파와 지역에 편중되고 기초불교이해에 필수적인 교과목이 결여되고 한국불교 관련 혹은 현대적인 불교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0년 전국 승가대학교교직자 총회에서 기존교과목을 필수로 하고 추가하여 한국불교사·유식·중관·중국불교사·인도불교사·불교개론·사미율의·범망경 등 8과목을 추가하였다.

16) 송광사 강주 지운, 송광사 강원회보 『정혜사』 제15호.

17) 현웅, 『해인동문회보』, 1997년 10월 10일.

18) 승가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분석한 권오민 교수는 현행 강원교육의 문제로 선종중심, 성종(性宗)중심, 차제방편을 무시하는 교육과정 등을 들면서, 교학과 종학을 구분하고, 차제에 의한 방편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권오민, 『교학과 종학』, 『한국불교학』 제41집(한국불교학회, 2005), pp.353-401.

2)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는 1990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입학정원 120명(불교학과 60명, 사회복지학과 60명)으로 인가를 받고, 1997년 정규대학으로 승인(교육부), 2002년 대학원 설립인가(불교학과 입학정원 20명)를 받았으며, 2004년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석사과정 30명, 박사과정 10명). 중앙승가대학교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설립한 종립 교육기관으로, 승려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목표도 이상적 승려로서의 자질(수행인)과 지도자로서의 역량(교화인)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불교의 전통적 수행방법과 학문의 연구방법을 결합하여 체계적인 승가교육을 실시하여 중생교화와 포교 및 역경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복지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천체계를 확립하며,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으로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학, 기초선원 등이 공존하고 있어서 일원화되지 못하는 기본교육으로 인한 교육 무질서와 예산낭비, 체계적인 불교교육의 결여, 대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자질 부족, 승가의 위계질서 혼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의 주된 원인으로는 승가대학 간의 갈등이나 교육과 수행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참선수행만을 강조하는 기초선원 교육을 기본과정 이후과정으로 승격하여 기본적인 교학과 율의교육을 승가대학에서 이수한 자들이 선원에 입학하여 참선수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앙승가대학교(대학)와 지방승가대학(강원)의 승려교육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선 대학 후 강원, 선 강원 후 대학 등의 방법이 제시되지만 각기 아래와 같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표 3〉 강원과 대학교육의 연계성

선 강원 후 대학		선 대학 후 강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초심자의 수행효과	일률적인 통괄이 불가능	일률적인 교육효과	전통승가상의 결여
신심유지와 출가수행에 유리	편파적인 파벌조성	불교학의 전반적인 기초확립 (석박사 등의 과정 이수가능)	교학위주의 종단 풍토
사찰업무 숙련	대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소극적	승가교육의 위상과 교육내실	사찰운영 인력부족
전통승가 가풍확립	강원교육 이후의 다른 기본교육이 필요함	위계확립, 인사행정체계 정비	대 사회적인 활동과 학문연구의 단절

그리고 현재 중앙승가대학교는 대외적으로 승려 기본교육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

원교육을 이수한 자들의 재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승려 기본교육에 충실한 승가대학으로 정비되기 위하여 강원과의 위상정립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승가대학교를 단일 기본의무 과정으로 하고 그 이후 강원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¹⁹⁾

그리고 교육·평가·수계라는 전체적인 단계교육에서 위계를 두고 이를 제도화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초교육을 이수하면 사미와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 생활을 보장해 주며,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비구, 비구니계를 받고 승가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전문교육을 수료하면 강사, 율사 등의 교역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등과 같은 제도이다. 이와 함께 승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교육을 정규 대학원 과정으로 인가 받아 석사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학문의 심화와 사회적인 승려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IV. 맺음말

불교의 전통은 승가교육을 통하여 전승되었으며, 시대별로 다양한 교육체제와 방법들이 활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불교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전승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인 교육체제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그 적응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서양종교의 유입과 함께 선교의 일환으로 시작된 교육 분야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도제를 양성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서양종교가 대체적으로 사회교육 체제와 함께하면서 종교 지도자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의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불교의 경우는 아직까지 전통교육과 현대교육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통교육에는 현대적인 학제와 교육체제가 부족하고, 현대교육에서는 전통적인 습의교육이 부족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전통적인 강원교육이나 선원교육과 현대적인 교육제도를 갖춘 중앙승가대학이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선학들에 의하여 제시된 과제들과 함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도제교육을 제안한다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일반적인 사회교육 정도를 고등학교 졸업으로 생각한다면 정규적인 대학 과정에서부터 도제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이기에 다양한 전문적인 현대교육을 이수할 있는 기회가 함께 대학 안에서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승가대학을 정규대학 과정으로 하고, 기존의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 등과 함

19) 본각, 『중앙승가대학교의 교육위상에 대한 고찰』, 『승가』 16(중앙승가대학교, 1999), pp.77-85.

깨 공동의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학점교류제와 같은 제도를 상호 활용하여 다양한 전문 지식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공동 교육의 장을 종단차원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불교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학위와 병행하여 교과과정과 공동생활 속에서 수행과 습의 등의 전통적인 종교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승가 대학교과 동국대학교에 전통교육과 관련한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한 수행 교과과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통 수행교육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검토를 수반하여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하여 현재 기본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승가대학, 기본선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등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계별 교육과 전문적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재편성하고, 도제교육이 기본교육으로 다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을 목표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금의 한국불교가 처하고 있는 전통과 현실의 상반된 혼란으로부터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인 적응이라는 조화를 통한 현대적인 출가자 도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교 지도자의 새로운 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현대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오민, 「교학과 종학」, 『한국불교학』 제41집, 한국불교학회, 2005.
- 기시모토 히데오 저, 박인재 역, 『종교학』, 김영사, 1983.
- 김경집, 『한국근대불교사』, 경서원, 2000.
- 남도영, 「한국사원교육제도」, 『역사교육』 27·28, 역사교육학회, 1980.
- _____, 「승가교육의 역사적 고찰」, 『승가』 1, 중앙승가대학교, 1984.
-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 동화출판사, 1981.
- _____, 「출가위승과 교육의 제문제」, 『석림』 15, 동국대 석림회, 1981.
- _____, 「승가교육의 제도개선 방향」, 『승가』 7, 중앙승가대학교, 1990.
- 본각, 「중앙승가대학교의 교육위상에 대한 제언」, 『승가』 제16권, 중앙승가대학.
- 원의범, 「승가교육의 역사적 전개」, 『석림』 9, 동국대학교 석림회, 1975.
- 이기영, 「승가교육의 제문제」, 『석림』 9, 동국대 석림회, 1975.
- 이지관, 「한국불교승가교육의 사적고찰」, 『불교학보』 제18집, 불교문화연구원, 1981.
- _____, 「강원교육」, 『석림』 6·7합본, 동국대 석림원, 1973.12.
- 지운, 「승가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 『불교와 문화』 29호, 1999.4.
- 최관수, 「교육에 취(就)하야」, 『조선불교종보』 제14호, 삼십본산연합사무소, 1919.
- 최종명, 「현대한국사회와 승가교육」, 『한국불교학』 제28집, 한국불교학회, 2001.
- 早島鏡正, 『初期佛教の社會生活』, 岩波書店, 1964.

원고접수: 2010년 1월 5일 1차심사: 1월 24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 소개: 장 익

- ① 전공: 불교학, 밀교학, 한국밀교 / 소속: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밀교성립론, 대승과 밀교, 불교교육
 - ③ 주요논저: 밀교경전성립사론(역서), 밀교개설(역서), 밀교사상사개론(공저)
 - ④ E-mail: ijang@uu.ac.kr
-

Abstract

Assignment of Education for Buddhist Priests in Contemporary Society

Jang Ik

Dept. of Buddhist Studies, Uiduk University

This present work is undertaken mainly for suggestion to some assignments of education for the Buddhist priests in modern society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 system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Buddhism and to research how the education systems reflecting the contemporary society were admitted and applied to the education for the Buddhist priests by age. In particular, how the conduction of education for Buddhist priests in the Korean Buddhist tradition was specifically investigated.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gradual changes in the edu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Buddhist priests(Sangha) by age and the social changes from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to the modern Korea, in the way of putting importance on the traditional education. Even though the modern forerunners proposed new education systems, those had been left without being properly regulated in the historical confusion. Even after the modern edu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Korean society and in spite of the effort to introduce the modern system into the education of Buddhist priests, there is continued confusion between the existing traditional education and the modern educatio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is thesis proposes the followings as the priority tasks; first, the education for the Buddhist priests shall be started from the regular university courses and the opportunities to take various kinds of professional modern educations for the religious leaders shall be given; secondly, the traditional educational activities like ascetic practices and training of preliminary disciplines as the regular courses shall be conduct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serve and uphold the tradition of Buddhism; and thirdly, it is necessary for those purposes to examine the plan to reorganize the current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are institute for Buddhist priests in the temple(Sangha

University), Sangha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and so on, designated as the basic educational institutions into the integrated education in stages and the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Buddhist education, Korean traditional education, Education for Buddhist priests, Sangha University, institute for Buddhist priests, Dongguk University.